

# 길림시, 봄여름 문화관광 계절 상품 출시



길림시 송화호의 봄 / 자료사진

길림시는 요즘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와 봄빛이 완연하다. 4월 7일, 길림시 문화관광 부서는 봄여름 시즌을 맞아 문화관광 계절 상품을 공식 출시하고 전국 관광객들을 봄의 품으로 초대했다.

## ‘송화호 봄물고기 잔치’로 봄철 문화관광의 막 올려

4월 26일 ‘2025년 송화호 봄물고기 요리 시즌’이 길림시 송화호에서 개막된다.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관광객들은 얼음을 깨고 거

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풍만구 뱀가이촌과 교하 경령 활어음식거리 등 6대 어시장에서 송화호 ‘삼화일도’ 특산 생선요리를 맛볼 수 있다.

주최측은 또한 길림 남부와 서부 고속도로 입구, 장춘 구아백화점에 직판장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송화호 봄물고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는 송강동로에서 먼저 피어나는 꽃구경을, 4월 하순에는 길림대로 남부 구간에서 살구꽃을 구경할 수 있게 된다. 5월초에는 송화강변의 라이라크가 피어 수십

리 강변 꽃길을 연출하게 된다.

## 무형문화유산 향연 곧 개막

5월 5일(음력 4월 8일) 시작되는 길림시 북산 시상 행사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민속을 선보이는 동시에 ‘북산 무형문화유산 시장’도 열린다. 5월말에는 경극공연 월간 행사가 열려 ‘제2의 경극 고향’으로서의 길림시의 예술적 매력을 재현할 예정이다.

길림시 84개 문화관광단위들이 연합하여 ‘박물관의 도시’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세계 최대 운석을 소장한 길림시 박물관과 중국 4대 공자묘중의 하나인 길림묘박물관 등 문화 랜드마크를 포함한다.

## 캠핑과 불빛쇼로 여름의 서곡 연출

6월, 제3회 캠핑문화 시즌에 북대호와 송화호 두 대형 리조트에서 ‘별빛 콘서트’, ‘꽃길 걷기’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변 10대 캠핑장에서는 요트 파티와 모닥불 축제가 열린다.

주작산의 ‘산해정연(山海情缘)’ 대형 테마 불빛쇼와 현천정공원 북고풍 테마거리는 몰입형 관광 체험을 제공한다.

## 4대 혜택 정책 동시 시행

5.1 황금주간에 길림시의 국유 관광지에는 어린이와 로인에게 입장료 무료, 대학생에게는 반값 할인을 제공한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무료 미식 체험 전문 배스를 운행하며 매주 수요일은 ‘문화관광 혜택의 날’로 지정해 관광객들이 관광지 배표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주요 박물관은 야간 개장 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한다.

‘송화호 어부의 노래와 주작산의 별빛’까지 길림의 봄은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길림시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책임자는 “력사 문화 명도시인 길림시는 그림같은 풍경과 인문학적 향연을 준비해 관광객들과의 로맨틱한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

# 길림 항원제지 생산량 최고치 경신



최근, 길림시 고신복구 항원제지유한회사 작업장은 분명한 풍경이다. 로동자들은 종이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기업의 1월달 생산량은 2만 4,000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5톤 성장했다.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3A급 고강도 골판지(瓦楞紙)는 시장 반응이 량호하다. / 송화강넷

# 길림시, ‘살아있는 화석’—고목 지키기에 전력

길림시립업국이 따르면 현재까지 전 시 범위에서 등록된 고목은 총 389 그루로 그중 고목군 1곳에 107 그루의 고목이 있으며 산재한 고목은 282 그루이다.

최근 몇년간 길림시립업국은 ‘발견한 즉시 확인하고 자료를 만들고 보호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고목 보호와 고목 후속 자원 관리에 전력을 다해 ‘살아있는 화석’을 지키고 있다.

길림시는 여러 부문의 협력을 통해 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길림시립업국은 건설, 교통, 수리, 문화관광, 교육, 산업

정보화 등 부문과 협력해 고목과 고목 후속 자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전 시 389 그루의 고목이 ‘그루마다 파일과 QR 코드’를 갖추게 되었다. 고목 후속 자원 891 그루를 조사했으며 780 그루에 대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일반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1만 3,111 그루에 표지판 설치를 계획중이며 현재 8,550 그루를 완료해 고목 보호 작업이 점차 정교화와 규범화를 이루고 있다. ‘림장 + 고목 보호’를 통해 고목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목 보호를 각급 림장의 순찰 중점 내용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며 장부를 만들어 호림원과 고목 소유자의 공동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목 보호 및 복구 작업을 적시에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각급 림장은 240여차례의 순찰과 숲보호 활동을 진행했으며 25 그루의 고목에 대해 구조 및 복원 작업을 완료했다. 홍보를 강화해 가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고목의 시대적 가치를 크게 알리고 고목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고목 홍보 활동을 11회 진행했으며 홍보 전단지 3,000여부를 배포하고 시민들의 질문 100여개에 답변하여 대중의 고목 보호 의식과 자발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길림일보

# 영길현, 교육부로부터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현’으로 인정

최근, 교육부가 <2024년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현(시, 구) 목록 공지>를 발표한 가운데 길림시 영길현이 2024년 전국 188개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현(시, 구) 목록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길림성내 첫 평가 통과 현(시, 구)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인정 작업은 자격심사, 품질 모니터링, 사회적 인지도 조사, 지표 심사, 검증 평가 등 국가 감독평가 인정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최근 몇년간 영길현은 ‘과학기술로 현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꾸준히 시행하며 교육사업 발전을 최대의 민생 프로젝트로 삼아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투자 확대, 관리 규범화, 개혁 심화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교사대우 건설에서 직면한 장애를 해결하고 ‘농업소현이 대교육을, 경제 약현이 강교육을’ 실현하는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우수균형 의무교육 공공봉사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

현재, 전 현의 의무교육 우수자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사대우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되어 교육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선진적인 경험은 《인민교육》간행물에 두차례 게재되었으며 길림성내에서도 확대 교류되고 있다.

영길현은 다음 단계에 이번 인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 우수자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교육 관리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의무교육 우수균형발전 성과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교육으로 현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인민대중의 교육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송화강넷

# 1등 공신 김창남렬사, 그는 우리의 동창이었다

## 9년째 이어져온 추모의 발걸음



행사 참석자들 길림시 북산혁명렬사기념관에서

매년 청명절이면 길림시 북산혁명렬사기념원을 찾아 이곳에 영면한 김창남렬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의 빛나는 삶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길림시조선족중학교 동창들과 로삼기(老三届) 회원들이다.

올해도 청명절을 맞아 길림조중로삼기 회원들의 주도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당총지부는 회원 59명을 인솔하여 북산혁명렬사기념원을 방문, 김창남렬사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로삼기 하영덕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로인협회당총지부 부서기 황정애는 추모사를 통해 김창남렬사의 업적을 되새기며 깊은 경의를 표했다. 로인협회 부회장 황성기와 로삼기 분회 부회장 손종길은 화환을 진정하고 조선족 전통 제례 풍습에 따라 제물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정렬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며렬사의 명복을 빌었다.

23세의 영웅 김창남렬사는 1946년 료녕성 출생으로 1968년 3월 인민해방군 육군 제 39군 115사단 343련대 1영 1중대에 입대했다. 분대장으로 성장한 그는 1969년 심양군구 가을 군사훈련에서 한 신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 위험지역으로 날아가는 순간에 주변 동료들을 구

하기 위해 몸을 던져 중상을 입고 안타깝게 희생됐다. 소속 부대는 그의 희생을 기려 1등 공을 수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3세였다.

## 영웅들의 정신은 우리의 등불

이어 참석자들은 북산렬사기념관을 방문해 혁명렬사들이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지도 아래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그대들의 업적은 력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그대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렲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위대한 중국꿈의 실현에 조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우 남제현이 전하는 김창남렬사에 대한 추억은 다음과 같다. 김창남렬사는 1966년 길림조선족중학교 고등부(로삼기)를 졸업했으며 학창시절 학생회 주석을 역임했다. 사상이 진보적이고 학생들과의 우애도 두터웠다. 동시에 학업도 우수했기에 ‘3호학생’, ‘모범공청단원’ 등 영예 칭호를 받았다. 1968년 입대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분대장으로 승진해 전우들을 인솔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 문장호트약기자, 차영국기자

# 반석시 조선족, 혁명유전자 계승하고 항일련군 정신 이어간다

4월 3일, 반석시홍광중학교에서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100여명 회원들과 반석시홍광중학교, 반석시조선족실업소학교 사생들이 ‘혁명유전자 계승하고 항일련군정신을 고양하자’는 주제의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리홍광 등 항일혁명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렲사를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담았다.

반석시 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과 홍광중학교, 조선족실업소학교 사생들은 깊은 존경심을 안고 행사에 참석했다. 로인협회 많은 고령 회원들도 이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다.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김병희 회장과 류대진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홍광중학교 김일동 교장, 최룡철, 량상길, 김화숙 등 학교 책임자들은 각각 사회단체와 학교를 대표해 홍광중

학교 리홍광 장군 동상에 정성스럽게 화환을 진정하고 묵념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 담긴 선열들에 대한 애도와 존경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숙연하고 장엄했다.

이어진 추모 행사에서 김병희 회장과 김일동 교장이 각각 협회와 학교를 대표해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홍광중학교 해설원들은 양정위, 리홍광 등 항일영웅들이 극한의 환경 속

에서도 굶하지 않고 싸운 감동적인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마치 그 시대를 직접 목격한 듯 집중 경청하며 선열들의 투쟁 렲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동북항일련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감을 지니고 전진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반석시 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과 조선족중소학교 사생들은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새시대에도 혁명정신이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실천적 행보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 모두에게 렲사의 소중함과 혁명정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기자가 알아야 할 데 따르면 1987년 10월, 반석현 당위와 정부는 항일민족영웅 리홍광렬사를 기념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반석현조선족중학교를 ‘홍광중학교’로 명명하였다.

그 이듬해 5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팡징이 홍광중학교의 새 교사 락성식에 즈음하여 학교에 ‘홍광중학교’라는 제자를 써주었고 교정의 중앙에 세운 리홍광동지의 동상에 ‘항일민족영웅 리홍광 장군’이라는 제자도 썼다. 근년에는 리홍광기념관이 홍광중학교에서 개관했다. / 류대진, 차영국기자



리홍광기념관 관람자들이 홍광중학교 학생의 해설을 듣고 있다.